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일상은 멈춰도 '예배와 나눔'은 멈추지 않은 한 해

송구영신예배, 12월31일(금) 오후11시30분 본당 대예배실과 부속실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은지 벌써 2년이 되어오는 가운데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코로나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광림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 한 해를 지나왔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는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금) 오후 11시30분 광림교회 대예배실과 각 부속실로 분산되어 철저한 방역지침 속에 거리두기를 하며 드린다. 또한 홈페이지와 유튜브, 줌을 통해서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특별히 CTS 방송을 통해 광림교회 송구영신예배가 생중계 된다.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개인용 성찬키트를 드라이빙 스루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각 교구 전도사는 교회에 오기 힘든 성도들에게 성찬키트 요청을 받아 가정을 방

문해 미리 배부하고 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광림교회는 영혼 구원을 넘어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회적 성화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웃과 나누며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을 실천해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광림교회의 슬로건은 '일상은 멈춰도 나눔은 멈추지 않는다'이다. 작년에 성도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을 돕는 <광림 선한소비운동>에 이어 올해는 <광림 선한나눔운동>으로 어려운 이웃과 선교사들에게 1,000개의 나눔박스에 의류, 마스크, 손 세정제, 식료품과 건강보조식품, 의약품에 담아 보냈다. 특히 우편발송이 가능한 580여 선교사 가정엔 한국식품과 의약품, 건강식품을 박스에 담아 보냈으며, 탄자니아, 르완다,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약 5톤 분량의 어린이 교복과 활동복, 교육교재도 보냈다. 또한 광림교회는 올

해 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했던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마스크 5만장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부활절 무렵엔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했으며 지난여름에는 강남구청, 강남복지재단에 어르신들을 위한 생수 7,000병을 후원했다. <광림 선한나눔운동>은 연말에도 이어진다. 특별히 청년부에서는 전국 100개 교회에 흩어져 여름성경학교를 하던 교육선교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그 교회학교들의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돕기 위해 <교회학교 회복 성장키트>를 전달했다. 성탄절에는 서울 강남 지역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전국 20개 지역, 100개 교회에 이불 1,225채와 방한용품 전달하는 <사랑의 이불나눔>을 진행했다. 또한 서울남연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나세남(나누고 세우는 서울남연회) 프로젝트>를 통해 130개의 미자립교회를 후원하여 왔고, <아젠젤러 선교센터>를 개관하여 전 세계 80여 개국에 파송된 1,350명의 선교사들이 국내에 오면 머무를 수 있

는 안식과 치유의 공간을 마련했다. 광림교회는 다가오는 2022년에 코로나 위기를 넘어(Beyond Corona) 예수님과 함께(With Jesus) 새롭게 도약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겔 37:1-6)라는 표어로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올바른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광림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시대적인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새해의 비전을 밝혔다.

변영혜 기자

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둡고 참혹했습니다. AD64년경,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 가운데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2절)라는 인사말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세워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희망과 기쁨보다는 실망과 좌절, 절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살았던 2000여년 전, 환란과 박해를 피해 동굴 바닥과 같이 어둡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산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살피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는 산 소망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좌절하고 실망하여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 하시며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이었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의 발걸음으로 변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주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될 때 그들의 발걸음을 생명의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많으신 공훈대로”(3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훈’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절망과 실망, 좌절의 걸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소망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산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산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절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둘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에 우리는 산 소망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타의에 의해 빼앗긴 것이고 절망이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대한 미련보다는 썩지 않는 다가올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그러기에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을 터인데, 그 기업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삶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눈앞의 삶과 상황이 힘들더라도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

아갈 때 지금의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명절이 되면 힘든 귀경길에 오릅니다.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길지만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는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부족하더라도 이 캄캄한 터널 같은 길을 통과할 힘을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늘의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기에 우리는 산 소망의 사람’입니다.

본문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

쳐와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시험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대하여 마치 불같다고 표현합니다. 시험을 우습게 여길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져 갑니다. 잠시 근심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깨끗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칭찬 받을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환난당하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산 소망 즉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 것을 바라보며 더 좋은 본향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꿈꾸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과 시련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산 소망의 소유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성경공부 프로그램 수료식



지난 12월15일(수) 저녁7시30분, 수요 예배 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수료식>을 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분학기는 3월2일~5월 18일까지 역대상, 하를 공부했고, 가을학기는 9월7일부터 11월30일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를 공부했다. 분학기 4,540명, 가을학기 4,488명중 수료자는 2,246명이고

이수자는 392명이다. 이 시간에는 주일 프로그램인 4 STEP 평신도 지도자교육(161명)/ 유양겔리온 전도학교(102명)/ 츠즈라이프(16명)/ 어번던트 라이프(18명) 수료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김정석 담임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동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성경공부를 강화하여 트리니티와 주일마다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4개의 반을 만들었다. 코로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회, 선교회 같은 소그룹 모임이다.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중보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제일이다.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이수하신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광림의 교우들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수료자 대표로 수료증을 받은 18교구 김은실 집사는 “이번 트리니티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백명순 기자

당회 / 구역회, 2022년 신천임원 선출



12월 26일(주일), 오늘 저녁 예배시간에 광림교회 당회, 구역회가 본당에서 철저한 방역 관리 가운데 진행된다. 당회, 구역회는 매년 연말에 한번 열리며,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교회 내 중요한 회의이다. 교인 명부를 정리하고, 교회를 위해 일 할 새 임원을 선출하며, 교회 조직을 개편한다. 당회는 개척교회를 조직하

고 구성하는 기본회의이며, 구역회는 개척교회가 일 년 동안 해야 할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는 의회이다. 당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세 가지로 첫째는 입교인 정리, 둘째는 새로운 임원 선출, 셋째는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구역회에서는 예,결산 결의, 재산관리, 인사처리, 지방회 대표 선정 등을 한다. 참석 대상은 세례 받은 18세 이상의 입교인

과 교역자, 직분을 맡은 장로, 권사, 교회기관 부장, 속장, 선교회 임원 등이다. 올해는 신천 집사 58명과 신천 권사 46명, 명예 권사 4명, 총 108명이 직분을 받게 되며, 신천임원들은 오늘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 당회와 구역회에서는 교회 안 밖에서 이루어진 각종 사업과 행정을 결산 보고한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 선교회는 한 해 동안의 활동사항들을 영상으로, 나머지 40개 위원회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기타 업무처리 시간에는 2021년 1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봉사패를 수여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 자리를 통해 한 해 동안 교회의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사들을 보고하며, 2021년의 모든 행정을 마무리한다.

이정순 기자

104명의 신천 임원들 헌신과 사명 다짐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104명의 성도들이 2021년 신천 임원으로 12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 시 당회 및 구역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신천임원 필기시험을 나사렛 성전에서 치렀고,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에 온

오프라인으로 담임 목사와의 면담에 임했다. 김정석 담임 목사는 신천 임원들과의 면담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권면했다. 이어 “생명력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있게 된다”라고 전하였다. 또한 “신천 임원들이 성도에게 본이 되어 팬데믹 속에서도 주일 성수를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며,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라고 당부하였다. 신천권사로 임명되는 21교구 우혜경 권사는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권사 직분을 허락하신 만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권사라는 직분의 이름보다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게 맡기신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에서 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라며 새 직분으로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박희윤 기자

포토 뉴스



장로회 송년예배
12월 18일(토)사회봉사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렸다.



서울남연회 사랑의 쌀 나눔
12월 16일(목) 밀레니엄광장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울남연회 교회들에게 전달했다.



서울대병원 성탄트리 후원
12월 23일(목) 광림교회는 서울대병원 본관과 지하 곳곳에 성탄트리를 설치했다

담임목사 동정



- 12/13 선교사집중훈련 개회예배
- 12/15 여선교회 송년예배
- 12/16 신천임원 면담
- 서울 남연회 사랑의쌀 전달
- 12/19 유아세례
- 사랑의 이불 나눔 전달식
- 12/21 총회실행위원회
- 12/23 서울대병원 후원금 전달식
- 12/25 성탄절 예배
- 12/26 송년주일 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내 인생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

여선교회 송년예배는 모든 것이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담임목사님 말씀에 격려와 권면의 은혜가 가득했고, 시상식 때는 감사가 넘쳤으며, 성탄의 기쁨을 노래한 송년 음악회의 감동이 본당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경품 추첨시간. 크고 작은 많은 경품들 중, 1등상으로 담임목사님께서 후원하신 김치 냉장고가 소개되었고, 저 상품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살짝 했지만 설마 나겠어 하며 경품 추첨하시는 목사님을 아무 기대없이 보고 있던 그 순간. "11교구 마리아 전정희 집사."

제 이름이 불린 겁니다. 사회 보시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두 주먹 불끈쥐고 아멘하며 앞으로 나가면서도 꿈인지 현실인지 어느 예능인의 '이게 머선일이요'라는 유행어만 생각이 나고 얼떨결에 상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와 정신을 차렸을 때, 머리를 맞은 듯 얼마전 꾸었던 꿈이 생각났고 이 때를 대비하시고 이 장면을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 속은 송년예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본당에 모여 있는 예배 시간이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정희 집사님, 그 길을 어떻게 가려 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에 당황해 세상적인 생각의 말들만 이리저리저리 얘기하고 말았는데 말을 마치고 나서 마음속으로 '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할 걸' 하는 아쉬움에 잠에서 깰했습니다. 정답을 얘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담임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내 이름을 불러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 좋은 꿈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권사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허락하시며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물어보셨다는 생각이 박차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당황하고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과 동행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그 정답을 잊지 않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되어 고장난 김치 냉장고를 버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선교회 송년예배가 끝나고 본당 계단을 내려올 때 어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돌아옵니다. "내년 동탄교회 세우는데 큰 일 해야지" "아멘!"



전정희 집사(11교구)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선물 증정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배경호 권사)는 성탄절인 12월 25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오전5시 30분 압구정역 지하철 도착시간에 맞춰 한두 명씩 모습을 드러내더니 금세 행사를 진행하는 장천아트홀 입구에 길게 줄을 늘어섰다. 매주 수요일 새벽에 하던 행사가 코로나로 인

해 격월 첫째주 수요일로 바뀌었지만 성탄절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이날로 변경하였는데, 지난달 미리 알려준 탓인지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교회 봉사자들은 전원 1회용 방호복을 착용하고 어르신을 맞이 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사탕, 빵, 두유, 현금 이외에도 성탄절 선물로 겨울철 추위를 잘 견디어내라고 솜바지,

목도리, 장갑을 250벌 준비하여 함께 나누어 주었다.

배경호 권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을 맞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렵지만 봉사자들과 사회사업위원회 회원들의 성원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날 봉사자들이 입은 겨울점퍼는 나눔의집에서 후원하였다. 나눔의집 운영위원장인 이향노 권사는 "이번 겨울옷을 구입하여 사회사업위원회 10벌, 교회 미화원, 경비 등에게 30벌을 지급하였다. 나눔의집은 의류(옷)를 활용하여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미자립교회 등 외부지원 뿐 아니라 교회 내에 필요한 곳에도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특섭 기자

남선교회 <사랑의 쌀 전달식>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장로)는 12월 12일 주일 2부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사랑의 쌀은 각 교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찾아가는 대신 주소록 받아서 택배를 통해 일괄 발송되고 있다. 사랑의 쌀은 격월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번에 125포, 올해 들어 6번에 걸쳐 총 750가

정에 이천오백만원 금액의 사랑의 쌀이 전달되었고, 2007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4억 원의 금액이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날 사랑의 쌀 운동에 동참하여 쌀10kg 70포를 기증한 장대진 장로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되었으며, '사랑의 이불나눔'을 펼치는 청년선교국에게는 5백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감리교 남연회에 속한

교회가 420개나 되며 여기에서 1년에 500포의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림교회 남선교회가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귀하고 대단한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은데, 춥고 배고픈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도 선교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박기연 장로는 "사랑의 쌀은 교회안의 가까운 이웃을 돕는 것이며, 본교회에서 예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예식장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분기에 한번 찾아가던 시설 방문도 코로나 시국이지만 올해 2번 찾아갔고 동탄교회의 건축헌금 지원 등 남선교회의 선교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특섭 기자

부르심에 감사하는 여선교회

2021년 여선교회총연합회 송년예배



여선교회총연합회 송년예배가 12월 15일(수) 오전 10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전제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한 송년예배는 1부 예배와 성찬식, 시상, 2부 음악회, 3부 경품 및 선물 나눔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의 열정으로 해남감리교회 건축과 미자

립교회를 위한 헌신 등 사명을 감당하는 여선교회에 감사와 치하를 전했다. 또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고전 1:26~31)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의 삶으로 불러 주셨고, 연약함 가운데 강한자로 불러 주셨다. 또한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으니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인생으로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

어야한다"고 전했다.

이화열 권사(여선교회총연합회)는 "여선교회가 대예배실에서 2년 만에 송년예배를 올림을 정말 감사드리며, 힘든 시절에 여기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큰 비전을 주시어 이루어 줄 길을 여시며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음 써주시고 도와주신 담임목사님, 교회 모든 부서들, 해남감리교회 성전봉헌과 선교 사명을 가능토록 이끈 개체회장님과 회원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시상식에서는 20개 우수선교회와 89개 선교회에 출석 개근상, 64개 출석 정근상이 주어졌다. 트리니티찬양단과 가야금 연주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담임목사와 남선교회, 실업인선교회, 장로, 임원들의 후원으로 경품과 선물 나눔으로 한 해 동안 헌신한 선교회원들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희 기자

청장년부 성탄축하 찬양대회

12월 19일, 사회봉사관에서 찬양과 사랑의 이불 나눔, 후원금 전달



지난 12월 19일(주일) 사회봉사관 B홀에서 청장년부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축하 찬양 경연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숙원들을 초청하여 연습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정성어린 마음을 모아 찬양하면서 함께 웃고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은 많은 숙원들이 참석하고 아이들까지

도 연습을 많이 한 팀에게 돌아가 큰 축하를 받았다. 그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등 참가한 팀 모두와 상을 나누었다. 순수 예쁘게 만든 옷을 입은 팀에게 베스트 드레서상을 주어 함께 축하해주었다. 오랫동안 청장년부에 발걸음을 한 지체를 환영하는 상,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상, 동영상상을 포함하여 참여율이 제일 높은 팀을 위한 상 등 다채로운 상을 주어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헌금을 모아 청

년부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이불나눔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편기형 성도(청장년부 부장)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뜻깊은 찬양대회를 열게 됨을 감사합니다. 청장년부가 하나가 되어 화합하며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아 성도(청장년부)

신앙 간증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열 일곱살때부터, 저는 배우자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장년로서 커다란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자란 제게, 결혼은 부모님의 일생일대의 미션이자 삶의 목적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해 줄 사람보다는 제 인생의 모든 사역을 함께 할 친구이자 동역자를 바랬고, 부모님은 제게 울타리이자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그 간극을 매우기 어려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항상 원하고 바라는 것은 즉시 응답해주셨던 제게, 이 시간들은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Yes or No 라는 대답 대신, Wait 라는 답을 주시며, '결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가족들의 예배의 회복 없이는 우리 가정의 회복도 없다. 또한 고민중인 직장 문제도 보기 좋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터 위에 예배의 터전을 잡으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견디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직장도, 결혼도, 너의 가정의 믿음도. 너는 가만히, 잠잠히 기도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장애물은 환경과 여건이 아닌 가장 먼저 자신에게 있다. 흔들리지 말고, 시험 당하지 말라. 갈등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저 모두를 사랑해라.'

그 이후로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너는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길에 결혼보다 먼저 계획하셨던 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가셨습니다. 저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셨고, 늘 불안했던 연인과의 관계에 확신을 갖게 하셨으며, 관계성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하나님께서 시집 보내주시겠다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배와 기도 중에 받은 응답들을 모아 주신 지체대로 신중하게 부모님께 9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시작으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가족 여행을 떠났고, 양가 식구들 모두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둘을 아는 모든 분들이 매 순간 중보해주며 같이 울고 웃고, 받은 응답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고 위로와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어떠한 어려운 순간을 견뎌라도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윤고나 속강(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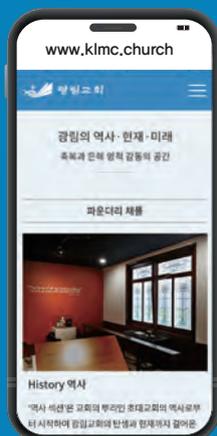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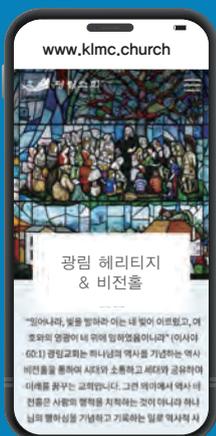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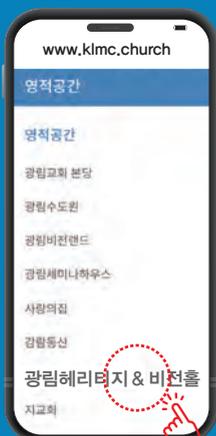
광림홈페이지 사용설명서 A To Z 6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는 '광림헤리티지&비전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거룩한 성령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광림교회 홈페이지 영적공간 카테고리에는 '광림헤리티지&비전홀'을 방문해 보자. 이곳에는 70년 동안 광림교회를 이끌어 주신 과거의 뿌리부터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풍성한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다. '광림의 역사·현재·미래' 섹션은 광림교회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길,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준 5대 전통 그리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담고 있다. '웨슬리의 발자취',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 섹션에서는 감리교를 탄생시킨 존 웨슬리의 일화와 감리교의 부흥운동, 웨슬리의 연보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사회봉사관 5층에는 광림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존 웨슬리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유병권 기자

광림헤리티지& 비전홀 바로가기



목회현장

사랑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김성산 목사(사랑부)

1991년 9월 8일, 본당의 작은 방에서 7명의 학생과 교사들로 시작된 사랑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사랑부는 베트남으로 공식적인 첫 해외 선교를 다녀오면서, 사랑을 받던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예배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랑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비록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지만, 부서별로, 팀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4일, 장천홀에서 사랑부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부가 다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주셨고, 기쁨과 소망으로 사랑부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가장 많이 모여 예배드렸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삼상 7:12)를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3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데,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창 41:46).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삼하 5:4).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였습니다(눅 3:23). 이제 30주년을 맞이한 사랑부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요 9:3).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고, 함께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 사랑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올해 말부터 사랑부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특화 직업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미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을 마치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재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삶이 풍성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림남교회

이웃 교회를 위한 '사랑의 당근마켓'



광림남교회 청년부는 지난 11월 28일 광림남교회 '이웃교회를 위한 사랑의 당근마켓'을 개최하였습니다.

청년부 임원들과 '선한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누었고 '청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까'를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서로 생각

을 모아 결정한 것이 바로 "사랑의 당근마켓"이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안 쓰는 물건들을 서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이웃교회에 전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과 이 마음을 함께 나누었고 각자 집에서 입지 않는 의류와 컴퓨터,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행사로 얻은 수익금은 근처 '남사 빛의 숲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청년부 임원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도움 줄 알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이 청년 공동체를 허락해주심에 감사했고,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중에게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힘든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선한 청년 공동체와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진 성도(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예수님의 생일잔치 - 교회학교



광림서교회는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주관으로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2021년 예수님의 생일잔치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한 달 동안 한 마음을 모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과 율동, 합주 및 시 낭독과 핸

드벨 연주, 찬양 및 밴드 연주를 통해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비올라 연주와 특별 찬양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동부 박규리 어린이는 "핸드벨을 연습할 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하다보니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준비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등부 최윤식 학생은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전했습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새롭게 태어나게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번에 세례를 받은 북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님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세례 간증>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50년 이 넘는 지나온 저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돈, 명예 등 이런 것만 많은 다 잘 될까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담임목사님께서 머리

에 손을 얹으시고 물이 머리에 닿을 때, 지금까지 모든 저의 잘못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께서 주신 네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연했는데, 친구에게 대화하듯 하고, 마지막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단순한 말씀이 좋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주일은 반드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십일조에 대한 각오도 해 봅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합니다.

황성욱 성도(광림북교회)

아이가 어려서 친한 지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지만, 선뜻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는 작년 한해가 너무 힘들었고, 저도 모르게 성경책과 하나님을 찾고 간

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시연이의 친구를 통해서 광림북교회를 알게되었고,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북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시작은 호렙산 기도회였습니다. 시연이와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까지 시연이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도 초신자이지만 하루에 세 번 감사기도 하며,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정석 담임목사님 말씀처럼 1. 항상 기도해라. 2. 말씀을 가까이 해라. 3. 예배하라 4. 십일조를 해라.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 성도(광림북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 3>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벨엘교회(Bethel Church)



1887년 정동 언덕에 르네상스식으로 지은 배재학당 본관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건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곳은 서구의 과학과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하는 선교 학교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직접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1887년 4월 4일 열린 선교사월례회에서 서울 중심부에 성경공부를 위한 장소를 구입하기로 결의하고, 9월에 작은 집을 구입한 뒤, 10월 9일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4명의 조선 사

람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이 지금 정동교회의 시작입니다. 아펜젤러는 처음 교회를 세우며 야곱의 비전을 생각했고, 교회 이름을 벨엘교회라 명명했습니다. 아펜젤러는 한국어 쓰기위해 노력했으며, 첫 세례식 때도 한국어로 집례했으며, 첫 성탄절 예배 때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설교를 했습니다. 뉴욕의 유니온신학교에 보관중인 아펜젤러의 수첩을 보면 그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수첩에 적고 매일 체크하며 외웠으며,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수첩에 적고, 그 뜻을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가급적 한국어를 쓰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아펜젤러의 노력으로 배움의 혜택 밖에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외국인이 하는 서툰 한국어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이후 벨엘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의 열기가 확산되어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회심하였고, 서양학문과 복음의 중심지가 된 정동에서 교파를 초월한 연합예배와 기도회 등이 연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동교회, 즉 벨엘교회의 성전건축은 1895년 8월 7일에 시작되었으며, 한 달 후인 9월 9일에 거행된 정초식에는 조정의 법무대신 서광범과 외무협관 윤치호 등이 참석할 정도로 조선 사회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조선 역사상 남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함께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수천 년 이어 내려온 조선 사회의 봉건성이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담임목사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떨며 즐거워하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마이클 리브스 지음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이며, 이 감정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깊은 당혹감에 빠뜨린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두려움 역시 혼란스러운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과연 두려움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혼란을 해소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은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강렬한 기쁨에 찬 경이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12월 22일 주일, 2부예배에서 총 5명의 유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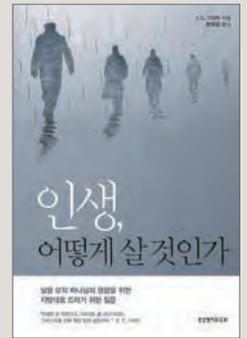
김리엘 부: 김요섭 모:임다정

천설하은 부: 천영욱 모:정찬희

이하나 부: 이찬희 모:박금지

홍라엘 부: 홍상수 모:김소연

김나은 부: 김성은 모:이나경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J. D. 그리어 지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만 보면 둘의 욕망은 서로 다를 바 없어보일 때가 있다. 안락한 생활과 풍족한 소비 생활을 추구하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는 단순히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받은 소명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받은 소명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물론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받은 재능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 분이 내리신 명령과 임무가 동일하게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좌우할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에 따라 삶을 재조명해야 한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세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12월 19일 주일 <2021년 2차 세례예식>에서 72명의 성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 | | | | | | | | | |
|----------|--------------|----------|----------|----------|----------|----------|----------|----------|
| 이상의 1교구 | 조승현 2교구 | 조승현 2교구 | 이복희 3교구 | 이소을 5교구 | 경규혜 5교구 | 김민경 6교구 | 박성은 6교구 | 안정경 6교구 |
| 최진태 7교구 | 홍정원 8교구 | 김재훈 10교구 | 안영희 11교구 | 정영진 13교구 | 황인수 15교구 | 김효주 16교구 | 김건희 16교구 | 김도영 16교구 |
| 함서연 16교구 | 김승주 19교구 | 임금순 20교구 | 강민정 22교구 | 박윤희 22교구 | 조연우 22교구 | 한현주 22교구 | 조승연 24교구 | 정유진 25교구 |
| 배명규 26교구 | 민지홍 27교구 | 이욱자 28교구 | 차정명 30교구 | 구윤희 51교구 | 구인희 51교구 | 장길순 52교구 | 이금희 53교구 | 김윤진 53교구 |
| 김윤수 53교구 | 이주호 54교구 | 이성진 54교구 | 표성환 61교구 | 이나연 61교구 | 최미영 71교구 | 김하진 71교구 | 박시연 71교구 | 황성욱 71교구 |
| 박승규 88교구 | 입교 → 안세희 2교구 | 조윤주 6교구 | 김기혁 10교구 | 정진아 10교구 | 한수는 18교구 | 우주영 21교구 | 황정원 21교구 | 황정원 21교구 |
| 김예영 22교구 | 박민서 22교구 | 허은재 23교구 | 박윤서 24교구 | 황유나 25교구 | 황유진 25교구 | 안나현 27교구 | 한범창 54교구 | 한지영 54교구 |
| 김보경 88교구 | 김보은 88교구 | 노하림 88교구 | 박정호 88교구 | 박주영 88교구 | 염호성 88교구 | 이서은 88교구 | 이소연 88교구 | 이연경 88교구 |
| 진예은 88교구 | | | | | | | | |



본당 입구와 밀레니엄 광장

세상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광림교회 성전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과 성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순금으로 일곱 등대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성막 안에 이후에는 성전에 설치되어 빛을 밝혔다. 빛은 광림교회의 상징이며 '숲속에 타는 불꽃'을 의미한다. 걸음을 멈추고 본당 건물 정면 위의 십자가 부조와 스테인드글라스, 성전 입구 출입문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자. 행정실이 위치한 희망의 탑과 성전 왼편의 선한목자상, 밀레니엄 광원의 행복한 가족상과 타임캡슐, 비둘기가 내려앉은 십자가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섬세한 의미가 새겨져 있다.

소현수기자



본당 정면 부조

십자가 부조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아래에는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성경 내용이 조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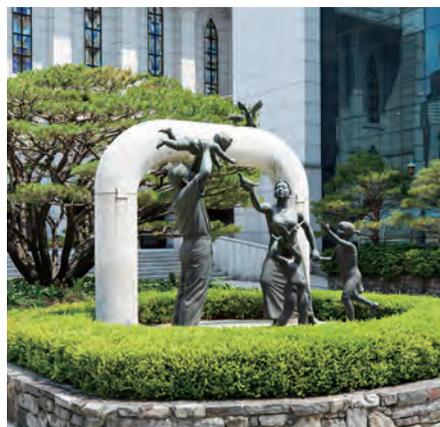
일곱 등대 스테인드글라스

일곱 개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성경의 일곱 등대를 의미하며 일곱 등대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도의 바른 행실을 말한다. 맨 윗부분은 촛불 모양이 새겨져 있어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을 상징한다.



행복한 가족상

밀레니엄 광장 중앙에 위치한 행복한 가족상은 복음을 통한 온전한 가족의 회복, 치유를 상징한다.



희망의 탑(십자가 종탑)

희망의 탑은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설치된 마리아는 무한히 상승하는 신앙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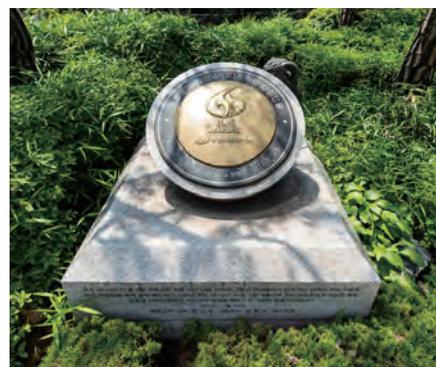
평화의 십자가

비둘기가 내려앉은 십자가는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평화와 섬김의 사역을 상징한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곱 개의 문

일곱 개의 문은 일주일을 상징하며, 매일 성전에 드나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상징한다.



교회창립 60주년 타임캡슐

교회창립 60주년을 기념해 2014년 3월 30일 밀레니엄 광장에 타임캡슐을 매설했으며, 창립 160주년을 맞는 2113년11월 13일 개봉할 예정이다.



네 개의 앞 십자가

동서남북의 네 방향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를 상징한다. 십자가 신앙을 중심으로 온전함과 화해를 이뤄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선한목자상

선한목자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실 만큼 사랑해주시는 분이시다(요10장). 선한목자상은 광림교회의 돌봄목회를 상징한다.

